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

—新케인즈學派를 중심으로—

金 信 行*

<目 次>

- I. 머리말
- II. 로빈슨—가레나니模型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
 - 1. 閉鎖經濟
 - 2. 開放經濟
- III. 칼도—파지네티模型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
 - 1. 閉鎖經濟
 - 2. 開放經濟
- IV. 인플레이션 障礙要因
- V. 맺는말

I. 머 리 말

資本主義經濟體制는 본질적으로 蓄積된 資本이 經濟內에 再循環됨에 따라 成長이 지속되고 이러한 循環過程에서 勞動者와 資本家階層간에 所得分配問題를 惹起시키게 된다.

로빈슨(J. Robinson), 칼레키(M. Kalecki), 칼도(N. Kaldor), 파지네티(L. Pasinetti), 가레나니(P. Garegnani)와 같은 新케인즈學派(Neo-Keynesian)의 經濟學者들은 所得分配의 原則을 위와 같은 資本主義經濟體制의 本質的인 屬性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新케인즈學派의 分配理論은 自由企業經濟體制下에서의 市場機構의 原則에 입각한 新古典學派의 限界生産力의 分配原則과 雙璧을 이루게 된다.

本稿에서는 自由貿易의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傳統的인 新古典派의 理論體系로부터 離脫하여 新케인즈學派의 理論體系에 입각하여 分析하여 보고자 한다.

新케인즈學派의 模型을 설명의 편의상 둘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資本蓄積率이 零인 상태에서 단순히 生産方法의 變化만을 고려하게 되는 模型下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를 考察하였으며, 여기에 적합한 模型으로서는 資本主義經濟體制에 있어서의 利潤率均等化의 原則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로빈슨—가레나니의 模型을 채택하였다. 두번째로는 資本蓄積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貿易學科 助教授

率의 변화를 허용한 상태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를 검토하였으며, 여기에 적합한 模型으로서는 케인즈의 有效需要理論을 根幹으로 한 칼도—파지네티模型을 利用하였다.

위 兩模型의 前提아래서 貿易의 所得分配效果를 검토하여 본 결과, 本稿에서는 傳統的인 新古典派의 理論體系에서 示唆하고 있는 바와는 相衝되는 結果가 發生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勞動이 豊富한 經濟에서 自由貿易의 實施는 勞動者보다는 오히려 資本家階層에 有利하게 所得을 再分配하게 될 수 있다는 結果를 얻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韓國과 같은 輸出主導型의 開放經濟體制는 위와 같이 貿易으로 인한 利潤率上昇의 結果로 말미암아 所得의 不均等상태를 深化시키게 되고 인플레이션 障礙要因에 直面할 위험이 있으며, 이를 克服할 수 있는 方案으로서 資本蓄積의 증가와 技術進步의 역할의 重要성을 本稿에서 밝히고자 한다.

II. 로빈슨—가레나니模型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

1. 閉鎖經濟

어느 한 經濟에 消費財(C)와 投資財(I)의 두 財貨가 각각 相異한 方法으로 生産되고 있으며, 이 兩財貨의 最終販賣額은 勞動者와 資本家의 兩階層에 分配된다고 하자.

이때에 로빈슨의 가정에 따라 資本家は 所得의 全部를 投資하고 勞動者는 所得의 全部를 消費한다고 가정하면 對外去來를 배제한 閉鎖經濟下에서 消費財에 대한 總體的인 需要額은 消費財部門과 投資財部門에서 支給되는 勞賃의 總合計額이 될 것이다. 이를 각각 W_c 와 W_I 라고 하면, 이 經濟에서의 消費財에 대한 總需要額은 $W_c + W_I$ 가 된다. 그런데 消費財의 總販賣額($P_c \cdot C$ 여기서 P_c 는 消費財의 價格이며 C 는 消費財의 總販賣量이다)에서 勞動者에게 支給되는 賃金部分인 W_c 를 뺀 나머지 부분은 消費財生産에 있어서의 利潤인 Π_c 가 되므로 消費財 $\Pi_c = W_I$ 가 성립된다. 즉 消費財生産에 있어서의 利潤은 投資財生産에서 支給되는 勞賃額과 一致한다는 結果가 說明된다.

資本主義經濟의 運行을 결정짓는 데에 가장 外生的인 성격을 띤 變數를 投資라고 規定지을 때 消費財産業에 있어서의 利潤은 投資財産業에 있어서의 投資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論理가 성립된다. 投資財産業에 있어서의 投資率이 증가할수록 利潤은 증가하며, 投資率이 감소할수록 利潤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消費財의 價格 P_c 는 消費財의 總體的인 供給量과 總體的인 需要量이 一致되는 水準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이때에 消費財 단위로 표시한 消費財生産의 利潤率 r_c 는 勞賃은 一定한

生産期間이 경과한 이후에支給된다는 前提아래서 다음과 같은 數式으로 표현된다.

$$r_c = \frac{C - W_c}{P I_c}$$

여기서 P 는 投資財의 價格 P_I 를 消費財의 價格 P_C 로 나누는 것으로서 消費財單位로 표시한 投資財의 價格이 된다. 그리고 W_c 는 消費財 單位로 표시한 消費財 生産에 있어서의 賃金支給額이며, I_c 는 消費財 生産에 投入된 投資財의 量을 나타낸다.

投資財 産業에 있어서의 利潤率도 위와 동일하게 消費財 單位로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r_i = \frac{P I - W_I}{P I_I}$$

여기서 W_I 는 앞에서와 같이 消費財 單位로 표시된 投資財 生産에 있어서의 賃金支給額이며, I_I 는 投資財 生産에 投入된 投資財의 量을 나타낸다.

資本主義經濟下에서의 利潤率均等化原則에 따라 r_c 와 r_i 는 一致될 것이고 이러한 利潤率均等化를 이룩하는 價格 P 가 閉鎖經濟下에서 消費財 單位로 표시한 投資財의 價格이 된다. 즉

$$\frac{C - W_c}{P I_c} = \frac{P I - W_I}{P I_I} \tag{1.1}$$

의 式을 충족시키는 價格水準 P 가 閉鎖經濟下에서의 投資財價格이 된다.

위의 利潤率均等化式에 앞서 言及된 바 있는 資本家は 所得의 全部를 投資하고 勞動者는 賃金の 全部를 消費한다는 로빈슨의 假定을 導入할 것 같으면, $P = W_I / I_c$ 가 된다. 즉 兩産業간에 利潤率을 均等化하는 投資財의 價格은 投資財 부문에 支給되는 賃金 W_I 를 消費財 부문에 投入되는 投資額으로 나누는 것으로 표시된다. 投資財 부문에서 지급되는 賃金이 클수록 消費財 부문에 投入되는 投資額이 적을수록 投資財의 價格은 커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資本家の 利潤은 全部 再投資되고 勞動者의 賃金은 全部 消費된다는 前提아래서 消費財와 投資財의 兩生産財部門에서의 利潤率을 均等化하는 價格構造를 살펴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論理의 展開는 資本家の 利潤중에서 一部는 消費되고, 勞動者의 賃金중에서 一部는 貯蓄된다는 假定을 도입하여도 그 妥當性은 여전히 固守된다.

資本家階層의 貯蓄性向을 s_c , 勞動者階層의 貯蓄性向을 s_w 라고 하자. 그러면 消費財에 대한 總體의 需要額은 $(c_c \Pi + c_w W)$ 가 된다. (1) 資本家階層의 消費(즉 $c_c \Pi$)는 消費財에 대

(1) 資本家階層의 貯蓄性向 s_c 에 消費性向 c_c 를 더하면 1이 되며, 勞動者階層의 貯蓄性向 s_w 에 消費性向 c_w 를 더해도 1이 된다. 그리고 Π 는 그 經濟內의 總利潤으로서 消費財와 投資材 生産에서의 利潤인 Π_c 와 Π_I 를 더한 것이 되며, W 는 總賃金으로서 兩生産에서의 賃金額인 W_c 와 W_I 를 더한 것이 된다.

한 새로운 증가를 誘發하게 되고, 勞働者階層의 貯蓄의 증가는(즉 $s_w W$) 消費財에 대한 需要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s_c=1$ 과 $s_w=0$ 인 로빈슨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c_c \Pi > s_w W$ 이면, 消費財의 價格은 로빈슨의 경우에서보다 증가하며 $c_c \Pi < s_w W$ 이면, 消費財의 價格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 消費財價格의 증가는 消費財部門에서의 利潤率을 증가시키고, 消費財價格의 하락은 그 利潤率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勞働者의 支出은 賃金の 증가를 통해 勞働者階層에 歸屬되지 않으나, 資本家階層의 支出은 利潤率의 증가를 통해 資本家階層에 歸屬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勞働者階層은 그들의 收入을 支出하게 되나, 資本家階層은 그들의 支出이 다시 收入이 된다」고 말及한 칼레키의 論評은 타당성을 지닌다 하겠다.

資本家階層의 消費可能性과 勞働者階層의 貯蓄可能性을 도입한 模型에 있어서도 역시 投資財生産의 增加率이 利潤率의 결정에 支配的인 역할을 하게 된다.⁽²⁾ 따라서 이 경우에도 兩生産部門에 利潤率을 均等化시키는 價格構造는 投資率의 증가가 支配的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投資財의 價格決定을 로빈슨의 가정을 이용하여 定義했던 (1.1)式을 賃金(w), 賃貸料(r)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價格定義式으로 바꾸어 표현하여 보자.

$$\left. \begin{aligned} 1 &= wL_c + rPI_c \\ P &= wL_I + rPI_I \end{aligned} \right\} \quad (1.1)'$$

위 式에서 投資財의 價格 P 를 除去하면 利潤率과 賃金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³⁾

$$W = \frac{1 - I_I r}{L_c + (L_I I_c - L_c I_I) r} \quad (1.2)$$

위와 같은 賃金—賃貸料의 關係式은 消費財와 投資財 兩財貨의 生産方式이 주어진 상태에서 兩産業部門에 있어서의 要素價格인 賃金과 賃貸料를 均等化시키는 要素價格의 關係式이다. 投資財가 消費財보다 더 資本集約的인 방법으로 생산된다는 가정을 導入할 것 같으

(2) 이 경우 消費需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는 資本家와 勞働者階層의 貯蓄性向 이외에 兩生産部門에서의 利潤인 I_c, I_I 와 勞賃인 W_c 와 W_I 이다. 이 변수들 중에서 I_c 와 I_I 는 消費財와 投資財의 價格에 의해서, W_c 는 消費財 生産에 있어서 技術的인 生産關係에 의해서 결정된다. W_I 역시 一次的으로는 投資財 生産에 있어서의 技術的인 生産關係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나, 外生的인 변수인 投資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되므로 利潤率決定에 있어서 支配的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資本의 蓄積率인 投資에 있다.

(3) 위와 같은 關係式에 관하여는 P. Garegnani, "Heterogeneous Capital, 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heory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37, July 1970, p.408를 참조.

면(즉, $LcI_I > L_I Ic$), 위의 (1.2)식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표시된다. 이 圖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한 要素價格이 下落하면(예컨대 賃金), 他要素價格(즉 賃貸料)은 증가하게 되며, 이 減少率은 賃貸料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즉 要素價格線 WR 은 原點 O 에 대하여 오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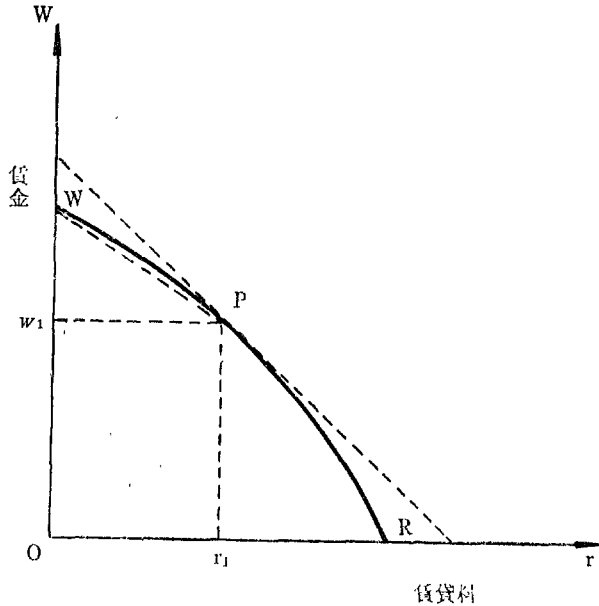


그림 1.

資本蓄積率이 零인 상태를 想定해 볼 것 같으면, 投資財의 生産은 단순히 消費財生産에서 磨損되는 資本財를 充當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며 一定期間동안에 있어서의 總產出量은 消費財單位로서만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資本蓄積率이 零인 상태에서 그림 1의 OW 는 1人當 純產出物을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그림 1의 要素價格線 WR 線上的의 어느 한 點 P 가 결정됐을 때 OW_1 은 賃金を 純產出物중에서 나머지 w_1W 는 1人當 지급되는 賃貸料를 표시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angle w_1PW$ 는 1人當 資本價值額인 것을 알 수 있다.

資本家와 勞動者階層의 所得分配을 설명함에 있어 가려나지는 이와 같이 資本蓄積率이

(4) (1.2)식의 賃貸料에 대한 一次導函數는 항상 陰의 數值로 나타나게 되며 二次導函數는 投資財가 消費財보다 資本集約的인 방법으로 생산될 경우에는 陰의 값을, 반대로 消費財가 投資財보다 資本集約的인 방법으로 생산될 경우에는 陽의 값을 나타낸다. 따라서 要素集約度의 逆轉이 발생할 경우에는 賃金-賃貸料의 要素價格線은 原點에 대하여 볼록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兩財貨生産의 要素集約度가 동일할 경우의 要素價格線은 直線이 된다.

零이 될 경우를 融合된 産業(integrated industry)으로 定義하고 있다. (5)

(1.1)'式은 2개의 方程式과 r, w, p 의 3개의 未知數로 構成되어 있다. 그러므로 (1.1)式에서 導出되었던 投資財의 價格인 $P=W_I/I_C$ 를 (1.1)'式에 代入할 것 같으면, r 과 w 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6)

$$r = \frac{I_I}{1 - I_C}$$

$$w = \frac{I_I}{L_I - L_I I_C + L_C I_I}$$

지금까지 우리는 資本家の 貯蓄性向은 1이고 勞動者の 그것은 零이라는 가정과 資本主義經濟는 兩産業間에 利潤率을 均等化시킨다는 原則아래서 投資財의 價格決定과 所得分配을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資本家와 勞動者の 兩階層에 있어서의 貯蓄性向이 주어지고, 兩財貨의 生産方法이 주어질 것 같으면 그림1의 要素價格線위에 어느 한 點이 一義적으로 결정되고 所得分配이 결정되는 것을 살펴 보았다.

2. 開放經濟

다음으로 앞에서의 설명한 내용이 貿易을 도입한 開放經濟下에서는 어떻게 修正되는가를 살펴보자.

消費財가 資本財보다 勞動集約的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우리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제는 勞動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주어진 經濟이어서 헉셔—오린의 定理에 따라 勞動集約的인 財貨인 消費財를 輸出하고 資本集約的인 財貨인 投資財를 輸入한다고 생각하여 보자.

그리고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生産方法에 있어서 資本과 勞動의 結合方法은 주어져 있으며, 投資財가 消費財보다 資本集約的인 方法으로 生産된다고 하자. (즉 $k_I > k_C$)

이와 같이 想定된 開放經濟의 模型에 있어서는 消費財와 投資財의 生産過程에서 支給된 賃金이외에 外國으로부터의 輸入需要(즉 우리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國家의 立場에서는 輸出)가 國內消費財에 대한 追加的인 需要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消費財의 國內價格은 閉鎖經濟下에서 보다 상승하고 消費財部門에서의 利潤率은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外國으로부터의 輸入에 의해서 投資財의 國內價格과 利潤率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貿易의 展開로 인해서 國內에서 生産되는 兩財貨의 價格이 변하게 되고 兩産業間에 利潤率을 均等化시키게 되는 새로운 利潤水準이 결정될 것이다.

消費財단위로 표시한 投資財의 國際市場價格을 P^o 라 할 때 이 價格은 앞에서 國內産業

(5) Garegnani, *op. cit.*, pp.409-410.

간에 利潤率을 均等化시키는 投資財의 國內價格 P 보다 낮을 것이다.

그러면 앞의 (1.1)式에서 消費財產業에서의 利潤率을 나타내는 左側項은 投資財의 價格이 下落함에 따라 증가하고, 投資財產業에서의 利潤率을 나타내는 右側項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消費財와 投資財의 生産이 閉鎖經濟下에서와 동일한 水準에서 存續되는 한 貿易의 展開로 利潤率의 均等化 현상은 깨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國際市場價格 P^0 아래서 兩產業間에 利潤率均等化 현상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貿易展開이전의 產業構造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필요가 있게 된다. 즉 消費財產業에의 投資의 증가는 r_c 를 하락시키고 投資財產業에 있어서 投資의 감소는 r_i 를 상승시키게 될 것이다.⁽⁷⁾ 이리하여 產業간에 投資의 再分配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水準에서 利潤率이 결정된다. 그러면 이와 같이 결정된 利潤率은 貿易의 展開이전의 利潤率과 비교해 보았을 때, 貿易이전 보다 높을 것인가 아니면 낮을 것인가?

自由貿易으로 인해 比較優位를 지닌 輸出財產業의 生産이 증가하고 比較劣位에 있는 輸入財產業의 生産이 감소하게 된다. 우리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經濟는 勞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經濟이어서 輸出財는 輸入財에 비해 勞動集約的인 방법으로 생산된다. 따라서 自由貿易에 의해서 勞動集約的인 財貨生産의 증가는 資本에 비해 勞動에 대한 需要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써 賃金은 自由貿易 이전보다 증가하고 賃貸料는 떨어지게 된다. 결국 勞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經濟에 있어서 自由貿易은 資本家に 비해 勞動者에게 有利하게 所得을 再分配하게 된다.

이와 같은 自由貿易의 所得分配에 미치는 傳統的인 命題는 다음의 그림 2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즉 自由貿易에 의해서 投資財의 對內價値가 떨어지고, 그림 2에서 閉鎖經濟下에서의 所得分配 均衡點 P 는 貿易이후 P'' 點으로 이동하고 賃貸料는 떨어지고 賃金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利潤率均等化原則에 입각한 古典派的인 價格決定論의 입장에서도 自由貿易論의 所得分配效果가 固守되는 것과 같이 설명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差異點이 內在해 있다. 新古典派的인 분석에 입각한 自由貿易論에 있어서는 兩財貨의 生産方法이 무수히 많아서 要素價格의 변화에 따라 生産方法이 柔軟하게 변할 수 있는 것을 基本的인 前提로 삼고 있다. 즉 賃金—賃貸料의 要素價格比率의

(6) 여기서 利潤率 r 은 投資財와 消費財 兩部門에서의 投資率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로빈슨의 利潤率의 결정이 投資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論理와도 符合된다.

(7) 이와 같이 消費財部門에 있어서 1人當生産量은 증가하고 投資財部門에 있어서 1人當生産量은 감소하게 되는 상태에 있어서의 生産方法을 資本使用的 偏向(capital using bias)의 生産方法으로 로빈슨은 定義하고 있다. Joan Robinson, *The Accumulation of Capital*, 3rd ed., Macmillan, 1971, p.97.

증가에 따라 兩財貨에 生産方法이 資本集約的인 방법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論議되고 있는 모델에 있어서는 이러한 柔軟한 生産方法의 변화가 배제되고 있다. 즉 消費財와 資本財의 生産方法은 k_c 와 k_i 로서 固定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生産係數가 固定되어 있는 상태에서 生産構造의 변화는 어느 한 生産要素의 失業을 招來하게 된다. 예컨대, 앞에서 論議된 바와 같이 消費財生産의 증가는 資本에 비해서 勞動의 吸收가 증가하게 되는 반면에, 投資財生産의 감소는 勞動에 비해서 資本의 放出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로 인해서 資本의 遊休施設化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利潤率은 떨어지게 된다. 즉 傳統的인 新古典派의 理論에 있어서는 生産要素의 完全雇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아래에서의 生産結合方法의 변화에 따른 要素價格의 변화가 설명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資本財施設의 遊休化를 통하여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가 설명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와 같은 資本財施設의 遊休化는 利潤率을 하락시키고 利潤率의 下落은 다시 投資의 하락을 촉진시켜 經濟는 침체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와 반면에 資本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國家에서는 失業이 發生하게 되나 利潤率은 상승하고 投資는 계속 증가하여 經濟는 好況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資本稀少國을 後進國, 資本이 豊富한 國家를 先進國이라고 보았을 때 自由貿易은 先進國의 富를 더욱 증진시키는 반면에 後進國의 富는 더욱 감소시킨다는 미르달(Gunnar Myrdal)의 論旨가 一面의 妥當性을 지닌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固定係數의 生産函數를 가진 經濟에 있어서는 自由貿易에 의해 生産要素의 遊休化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資本稀少國의 利潤率은 떨어뜨리고 資本이 豊富한 經濟의 利潤率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自由貿易의 結果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生産要素의 遊休化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生産方法의 변화가 촉구된다. 우리가 고려대상으로 하고 있는 資本稀少國經濟에서는 資本의 使用을 증진시키는 生産方法의 적용이 필요하게 된다. 첫째는 消費財와 投資財 兩財貨의 生産方法을 모두 資本集約的인 방법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消費財生産은 資本集約的인 방법으로 投資財生産은 勞動集約的인 방법으로 각각 변경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두 財貨중에 어느 한 財貨의 生産方法은 貿易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놓아 두고 나머지만 財貨의 生産方法만을 資本集約的인 방법으로 변경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資本集約度의 증가는 規模의 經濟와 관련되고 市場이 狹小한 後進國經濟에 있어서 消費財보다 더 資本集約的인 방법으로 生産되는 投資財의 生産方法의 資本集約度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投資財生産에 있어서와 같이 大規模의 資本投資가

要求되는 經濟에 있어서는 資本投資의 可分性(divisibility)이 결여되고 이러한 點은 다시 投資財의 生産方法에 있어서 資本의 深化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投資財生産方法에 있어서 資本深化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自由貿易으로 인한 資本施設의 遊休化를 방지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두번째 方法이 된다. 즉 消費財生産方法의 資本集約度를 증가시키는 한편 投資財 生産方法의 勞動集約度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生産方法의 변화는 앞서 그림 1에서 설명된 바 있는 賃金—賃賃料의 要素價格線을 변경시키게 될 것이다.

다음의 그림 2는 貿易 이전과 貿易 이후의 要素價格線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貿易展開 이후의 要素價格線의 기울기는 모든 賃賃料수준에 대하여 貿易 이전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消費財生産의 資本集約도가 증가하고 投資財生産의 資本集約도가 감소함에 따라 兩財貨生産에 있어서의 要素集約도의 隔差가 감소되고 있는 要素價格線上에서 賃賃料에 대한 賃金の 要素價格比率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基因한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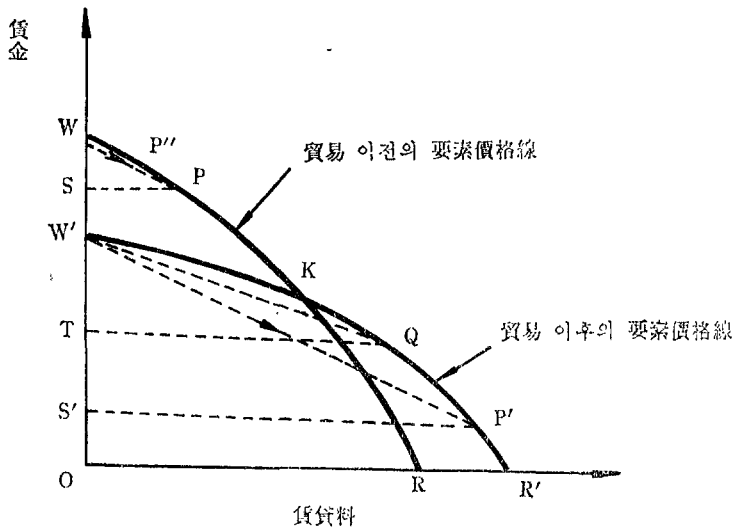


그림 2.

(8) h 를 兩財貨生産의 要素集約도의 차이로 표시했을 때 $\frac{d}{dh}\left(\frac{w}{r}\right)$ 의 符號는 陽(+)^{의 값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兩財貨生産의 要素集約도의 隔差가 작아질수록 그림 2에서의 要素價格線 WR의 기울기는 작아진다. 貿易 이후에 兩財貨生産에 있어서 要素集約도의 차이는 작아지므로, 貿易 이후의 要素價格線 W'R'의 기울기는 貿易 이전의 要素價格線 WR에 비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2)式에서 $r=0$ 일때 $W=1/L_c$ 인데, 自由貿易 이후에 消費財生産에 投入되는 勞動量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림 2에서 W' 은 W 의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 그리고 $w=0$ 일때 $R=1/I_f$ 인데, 自由貿易 이후에 投資財生産에 投入되는 資本量은 감소하게 되므로 R' 點은 R 點의 右側에 놓여 있게 된다. 따라서 貿易 이전의 要素價格線 WR 과 貿易 이후의 要素價格線 $W'R'$ 라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K 點에서 交叉하게 된다.

위와 같이 貿易 이전과 이후의 2개의 要素價格線을 나타냈을 경우 效率인 要素價格線은 WKR' 이 된다. 즉 WK 의 領域에서는 貿易 이전의 生産方法이 貿易 이후의 生産方法보다 優越하게 되고 KR' 의 領域에서는 貿易 이후의 生産方法이 貿易 이전의 生産方法보다 優越하게 된다.

따라서 貿易이 展開되기 이전에 所得分配은 WK 線上에서 貿易 이후의 所得分配은 KR' 線上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貿易 이후의 投資財의 對內價格은 貿易 이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投資財의 1人當 價値는 떨어지게 된다.

貿易 이전에 所得分配의 均衡點을 P 라고 했을 때 個人當 資本價値는 $\angle WPS$ 가 되는데 貿易 이후에는 投資財의 1人當價値가 떨어지기 때문에 貿易 이후의 所得分配點은 $\angle WPS$ 보다 낮은 點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Q 點과 같은 點에서 所得分配이 이루어질 것이다.

W' 點으로부터 WP 에 平行線을 그어 KR' 線上에서 만나는 點을 P' 이라고 할 것 같으면 貿易 이후의 所得分配點은 KP' 線上에 位置하게 된다. 따라서 貿易 이후의 所得分配點이 WK 線上에 位置하게 되고 貿易 이후의 所得分配點은 KP' 線上에 位置하게 되므로 이 兩部分에서의 所得分配을 비교하여 볼 때 勞動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經濟에 있어서 自由貿易의 展開는 利潤率을 높히고 賃金を 떨어뜨림으로써 資本家에게 有利하게 所得을 再分配하게 된다는 結果가 된다. 이와 같은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는 傳統的인 新古典派的인 理論에서 自由貿易은 그 經濟에 豊富한 生産要素에 有利하게 所得을 再分配하게 된다는 結果와 相馳된다.

投資財輸出國에 있어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는 消費財輸出國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結果를 가져온다. 즉 自由貿易 이후 投資財輸出國의 利潤率은 貿易 이전에 비해 떨어지게 되고 賃金은 오히려 貿易 이전에 비해 올라가게 된다.

消費財輸出國에 있어서는 貿易으로 인하여 資本의 遊休化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반면에 投資財輸出國에 있어서는 失業이 발생하게 된다. 失業의 發生이 除去되기 위해서는 勞動使用的인 生産方法으로의 變化가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資本豊富國의 輸出産業은 高度의 技術集約的인 産業이어서 投資財의 生産方法을

勞動集約的인 方法으로 변경시키는 데에는 限界가 있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失業을 解消하는 方法은 輸入財인 消費財部門에서의 生産方法을 勞動集約的인 方法으로 변경시키는 데 있게 된다.

投資財部門에서의 生産方法에는 變함이 없고 消費財部門에서 生産方法의 勞動集約度的 증가는 兩財貨部門에 있어서 要素集約度的 隔差는 증가하게 되고 모든 賃貸料水準에 대해 要素價格比率의 기울기는 증가하게 되며 貿易 이후의 要素價格線은 그림 3에서와 같이 $W'R'$ 이 된다. 投資財輸出國의 경우에는 貿易 이후에 投資財生産이 증가하고 消費財生産이 감소하므로 그림 3에서 W' 點은 W 點보다 위에 R' 點은 R 點보다 左側에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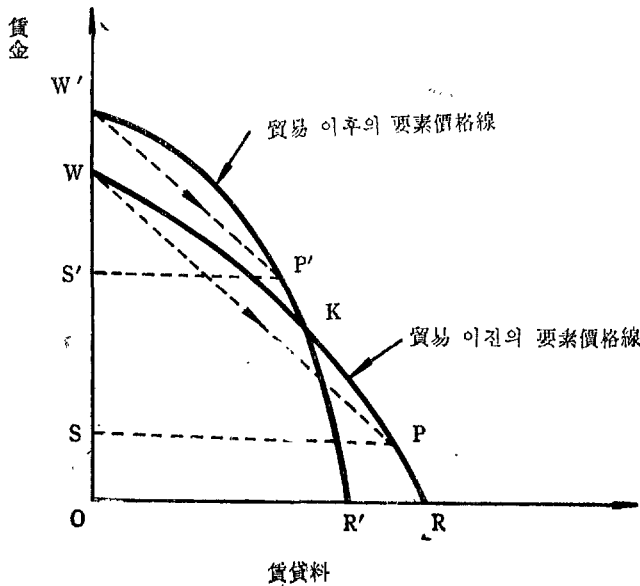


그림 3.

따라서 貿易 이전과 이후의 要素價格線은 K 點에서 만나게 되고 KR 線上에서는 貿易 이전의 均衡點이 $W'K$ 線上에서는 貿易 이후의 均衡點이 각각 이루어지게 된다.

예컨대, 貿易 이전의 所得分配點이 P 點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경우 W' 點에서 WP 線에 $W'P'$ 의 平行線을 그어 $W'R'$ 線과 만나는 點을 P' 이라고 할 것 같으면 貿易 이후의 均衡點은 $P'K$ 線上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貿易 이후에 投資財의 對內價値는 貿易 이후에 올라가게 되고 $P'K$ 線上에서 投資財의 價値는 上昇된 것으로 나타난다. $P'K$ 線上의 均衡點에서는 貿易 이전에 비해서 利潤率이 떨어지고 賃金이 올라간 상태이므로 投資財輸出國의 경우 貿易의 所得分配效果는 消費財輸出

國의 경우와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⁹⁾

III. 칼도—파지네티模型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

前節에서 우리는 資本蓄積과 技術進歩가 일어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資本蓄積率이 零인 상태에서 自由貿易으로 인한 단순한 生産方式의 변화에 따른 所得分配效果를 고찰하였다. 本節에서는 資本蓄積과 技術進歩가 발생하는 상태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 本節에서는 칼도—파지네티의 模型을 引用하였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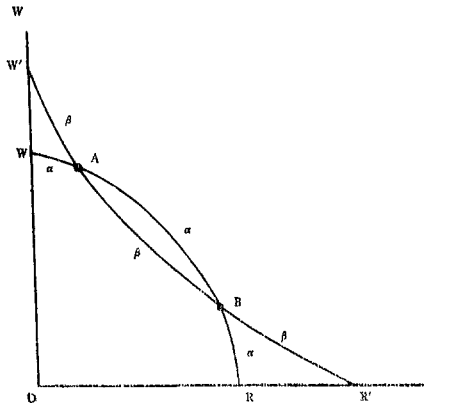
1. 閉鎖經濟

칼도—파지네티의 模型은 케인즈의 貯蓄—投資理論에 입각하여 所得分配를 설명하고 있다.

케인즈 理論에 立脚하여 볼 때 國民所得의 均衡은 貯蓄과 投資가 一致하는 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때에 投資는 外生變數로서 企業家の 景氣展望에 대한 期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자. 그리고 前節에서와 같이 所得階層은 資本家와 勞動者 兩階層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의 貯蓄性向을 각각 s_c 와 s_w 로 표시하고, $s_c > s_w$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經濟에서의 貯蓄性向(s)은 각 所得階層의 貯蓄性向 s_c 와 s_w 에 이들 所得階層에 귀속되는 所得分配比率를 加重值로 사용하여 얻은 平均値가 된다. 이것은 數式으로서는

(9) 그러나 아래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生産方法에 있어서 再轉換(reswitching)의 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에 대하여 一律의인 結論을 내리기 어렵다. 왜냐하면 貿易 이전의 生産方法을 α , 貿易 이후의 生産方法을 β 라고 할 때 β 方法下에서의 利潤率은 貿易 이전에 비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N. Kaldor, "Alternative Theories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55-6, pp.83-100. L. Pasinetti, "Rate of Profit and Income Distribution in Relation to the Rate of Economic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62, pp.267-79.

$s = (\Pi/Y) \cdot s_c + (W/Y) \cdot s_w$ 가 된다. $s_c > s_w$ 이므로 資本家階層에 有利하게 所得이 分配됨에 따라 經濟全體의 貯蓄性向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勞動者階層에 有利하게 所得이 分配됨에 따라 經濟全體의 貯蓄性向은 내려가게 된다.

投資가 任意的으로 주어진 상태에서 그 經濟의 所得이 均衡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貯蓄水準은 각 所得階層의 貯蓄性向이 주어져 있으므로 所得分配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것을 逆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均衡國民所得水準에서 所得分配은 唯一하게 一義的인 점에서 결정된다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所得分配의 決定理論을 칼도는 다음과 같은 數式으로 표현하고 있다.

$$\frac{\Pi}{Y} = \frac{1}{s_c - s_w} \frac{I}{Y} - \frac{s_w}{s_c - s_w}$$

즉 資本家階層에 귀속되는 所得分配率은 $s_c > s_w$ 인 상태에서 投資—所得比率(I/Y)에 陽의 函數關係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投資—所得比率이 커질수록 Π/Y 도 커지게 된다.

파지네티 역시 칼도와 類似한 所得分配決定論을 提示하고 있으나, 勞動者階層도 資本家階層과 마찬가지로 어떤 一定額의 資本財를 所有하고 있으며, 이로 부터 所得을 얻게 된다는 前提를 挿入한 점이 칼도의 模型과는 다르다. 이러한 修正을 가한 파지네티의 模型은 所得分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frac{\Pi}{Y} = \frac{1}{s_c} \frac{I}{Y}$$

파지네티의 結果는 資本家の 貯蓄性向만이 所得分配의 결정에 작용하게 되고 勞動者의 貯蓄性向은 無意味하다는 데에 그 特徵이 있다. 그러나 所得分配을 결정함에 있어 投資—所得比率이 중요한 變數로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데에는 칼도와 파지네티의 模型에서 다 동일하다.

그러면 I/Y 를 決定하는 要因은 무엇인가? 投資를 길정짓는 가장 直接的인 要因은 케인즈의 限界投資效率線이 示唆하듯이 企業家の 長期 投資에 대한 收益率의 예측일 것이고 이를 間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케인즈의 貨幣需要函數로 설명되는 流動性選好函數가 되겠다. 로빈슨 女史는 이와 같은 投資率은 資本蓄積率에 의해서 결정되고 資本蓄積率은 다시 企業家の 野獸的인 精神(animal spirits)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레로드—도마流的 定常均衡狀態(steady state equilibrium)를 생각해 볼 것 같으면, I/Y 는 自然成長率(g_n , 勞動의 生理的인 成長率)에 限界資本—產出高係數(v)를 곱한 것과 일치하게 된다. 定常均衡狀態에서 人口成長率이나 資本—產出高係數가 증가하게 되면 投資

—所得比率이 증가하고 이것은 다시 所得중에서 차지하는 資本家階層의 所得比重을 증가시키게 된다.

2. 開放經濟

여기서는 파지네티의 模型을 開放經濟體制로 擴大시켰을 때의 利潤率의 決定을 설명하여 보코자 한다.

첫째로, 經濟內的 總體的인 利潤(Π)은 資本家와 勞動者에게 歸屬되는 利潤의 合($\Pi_C + \Pi_W$)으로서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Pi = \Pi_C + \Pi_W \quad (2.1)$$

그리고 開放經濟體制下에서의 所得均衡式은 投資(I)와 輸出(X)의 合이 貯蓄(S)과 輸入(M)의 合과 같은 경우로서

$$I + X = S + M \quad (2.2)$$

과 같다. 여기서 投資와 輸出은 外生的인 變數로서 經濟與件에 따라 決定되고 貯蓄과 輸入은 所得의 函數로서 所得水準에 따라 內生的으로 決定된다고 할 때, 위의 所得均衡式은 다음과 같이 表現될 수 있다.

$$I + X = s_w(W + \Pi_W) + s_c \Pi_C + mY = (s_w + m)Y + (s_c - s_w)\Pi_C \quad (2.3)$$

여기서 s_c 와 s_w 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資本家와 勞動者의 限界貯蓄性向을 m 은 限界輸入性向을 각각 나타낸다.

위의 式으로부터

$$\frac{\Pi_C}{Y} = \frac{1}{s_c - s_w} \frac{I + X}{Y} - \frac{s_w + m}{s_c - s_w} \quad (2.4)$$

$$\frac{\Pi_C}{K} = \frac{1}{s_c - s_w} \frac{I + X}{K} - \frac{s_w + m}{s_c - s_w} \frac{Y}{K} \quad (2.5)$$

따라서 經濟內的 總體的인 利潤率은 Π/K 로서 다음과 같이 定義된다.

$$\frac{\Pi}{K} = \frac{\Pi_C}{K} + \frac{\Pi_W}{K}$$

여기에 (2.5)式을 代入하면

$$\frac{\Pi}{K} = \frac{1}{s_c - s_w} \frac{I + X}{K} - \frac{s_w + m}{s_c - s_w} \frac{Y}{K} + \frac{iK_W}{K} \quad (2.6)$$

이 된다. 그런데 均衡狀態에서

$$\frac{K_W}{K} = \frac{S_W}{S + M} = \frac{s_w(Y - \Pi_C)}{I + X} = \frac{s_w(s_c + m)Y}{(s_c - s_w)(I + X)} - \frac{s_w}{s_c - s_w} \quad (2.7)$$

이므로, (2.7)式을 (2.6)式에 代入하면

$$\frac{\Pi}{K} = \frac{1}{s_c - s_w} \frac{I+X}{K} - \frac{s_w+m}{s_c - s_w} \frac{Y}{K} + i \left\{ \frac{s_w(s_c+m)}{s_c - s_w} \frac{Y}{I+X} - \frac{s_w}{s_c - s_w} \right\} \quad (2.8)$$

이 된다.

長期的인 均衡狀態에서는 利率 i 와 利潤率 Π/K 는 일치하게 되므로

$$\frac{\Pi}{K} \left\{ 1 - \frac{s_w(s_c+m)}{s_c - s_w} \frac{Y}{I+X} + \frac{s_w}{s_c - s_w} \right\} = \frac{1}{s_c - s_w} \frac{I+X}{K} - \frac{(s_w+m)}{s_c - s_w} \frac{Y}{K}$$

즉

$$\frac{\Pi}{K} = \frac{1}{s_c} \frac{(I+X)}{K} \left\{ \frac{I+X - S_w - M}{I+X - S_w - (s_w/s_c)M} \right\} \quad (2.9)$$

위의 式으로부터 總所得중에서 차지하게 되는 利潤의 比重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frac{\Pi}{Y} = \frac{1}{s_c} \frac{(I+X)}{Y} \left\{ \frac{I+X - S_w - M}{I+X - S_w - (s_w/s_c)M} \right\} \quad (2.10)$$

開放經濟의 貿易收支均衡狀態 (즉 $X=M$)에 있어서 위 式은

$$\frac{\Pi}{Y} = \frac{1}{s_c + \left(\frac{s_c - s_w}{s_c} \right) \cdot m} \left(\frac{I+X}{Y} \right) \quad (2.11)$$

로 표시된다.

위의 所得分配式은 파지네티의 $\Pi/Y = (1/s_c)(I/Y)$ 에 약간의 修正을 가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파지네티의 閉鎖經濟下에서의 投資—所得比率은 開放經濟下에서는 $(I+X)$ 로 파지네티의 $(1/s_c)$ 은 $\frac{1}{s_c + \left(\frac{s_c - s_w}{s_c} \right) \cdot m}$ 로 代替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均衡成長經路上에서 利潤率은 勞動家階層의 貯蓄性向과는 獨立的으로 資本家階層의 貯蓄性向과 勞動의 成長率에 左右된다」는 파지네티의 定理에 완전히 符合되고 있지는 않다. 즉 資本家와 勞動者의 貯蓄性向이 일치하거나 限界輸入性向이 零이 될 경우에는 所得分配의 乘數 $(1/s_c)$ 는 開放經濟下에서나 閉鎖經濟下에서 동일하게 되나, 이 兩階層간의 貯蓄性向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開放經濟와 閉鎖經濟下에서의 所得分配乘數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開放經濟下에서의 所得分配效果 역시 칼도—파지네티의 模型에서와 마찬가지로 投資—所得比率에 의해서 左右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開放經濟下에서는 投資이외에 輸出이 追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開放經濟와 閉鎖經濟下에서의 所得分配率의 차이는

$$\frac{1}{s_c + \left(\frac{s_c - s_w}{s_c}\right) \cdot m} \left(\frac{I+X}{Y} \right) - \frac{I}{s_c Y}$$

와 같이 표시된다. 위 式의 分子는

$$\begin{aligned} X \frac{I}{Y} \left\{ s_c \frac{Y}{I} - \frac{s_c - s_w}{s_c} \right\} &= X \frac{I}{Y} \left\{ \frac{s_c}{s_c + s_w} - \frac{s_c - s_w}{s_c} \right\} \quad \left\{ \begin{array}{l} \text{貿易均衡상태에서} \\ I=S \text{이므로} \end{array} \right\} \\ &= X \frac{I}{Y} \left\{ \frac{s_w^2}{s_c(s_c - s_w)} \right\} > 0 \end{aligned} \quad (2.12)$$

위의 (2.12)式으로부터 自由貿易下에서 資本家에게 귀속되는 所得分配率은 閉鎖經濟下에서의 그것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自由貿易과 閉鎖經濟下에서의 利潤率의 차이도

$$X \frac{I}{K} \left\{ \frac{s_w^2}{s_c(s_c + s_w)} \right\} > 0$$

으로서 自由貿易下の 利潤率이 閉鎖經濟下에서의 그것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1)

위의 式(2.11)은 貿易收支의 均衡상태(즉 $B=X-M=0$)에 있을 때의 總所得중에서 차지하는 利潤의 比率를 나타내고 있다.

貿易收支가 不均衡상태에 있을 때의 所得分配率은

$$\frac{\Pi}{Y} = \frac{(I+X)(1+B/s_c Y)}{\left\{ s_c + \left(\frac{s_c - s_w}{s_c}\right) \cdot m \right\} Y + B} \quad (2.13)$$

과 같다.

위 式을 B 에 대하여 微分하면,

$$\frac{d(\Pi/Y)}{dB} = \frac{(I+X) \frac{1}{s_c} \left(\frac{s_c - s_w}{s_c}\right) m}{\left[\left\{ s_c + \left(\frac{s_c - s_w}{s_c}\right) \cdot m \right\} Y + B \right]^2}$$

과 같은 結果가 된다.

즉 資本家の 貯蓄性向이 勞動者の 貯蓄性向보다 클 경우(즉 $s_c > s_w$ 일 경우), $\frac{d}{dB} \left(\frac{\Pi}{Y} \right) > 0$ 가 된다. 즉 貿易收支가 改善됨에 따라 總所得중에서 차지하는 利潤의 比重은 증가하게 된다. 이것은 다시 貿易收支의 赤字는 總所得중에서 차지하는 利潤의 比重을 감소시키게 되는 것을 意味하게 된다.

위의 論旨은 「既存國際市場의 爭奪과 植民地의 擴張은 . . . 모두가 輸出剩餘를 圖謀하기

(11) 칼도-파지네티模型에서 貿易 이후의 利潤率증가효과는 앞서 설명한 로빈슨-가레나니模型에서 勞動이 풍부한 經濟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과 일치하나 전통적인 新古典派的인 模型에서 自由貿易은 그 經濟에 풍부하게 주어진 生産要素에 유리하게 所得을 分配한다는 結果와는 相馳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한 것이며, 이것은 對外的인 利潤(external profits)의 古典的인 根源⁽¹²⁾이 된다고 指摘한 칼레키의 論評과도 符合된다.

IV. 인플레이션 障礙要因

消費財價格의 上昇은 賃金에 대한 賃貸料의 比率을 증가시키게 되나, 賃金이 物價上昇에 뒤지게 되면, 勞働者階層의 實質所得은 점차로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物價의 上昇이 實質賃金을 最低生活賃金이하로 떨어뜨리게 될 경우 勞働者階層의 賃金上昇의 壓力은 점차로 倍加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物價의 上昇은 多少의 時差는 있겠으나 賃金上昇을 誘發하게 되고 賃金上昇은 다시 物價上昇을 誘發하게 되는 賃金—物價의 惡循環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賃金—物價의 惡循環은 결국 生産을 萎縮시키고 所得을 감소시키며 失業을 발생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바람직스럽지 못한 賃金—物價의 惡循環을 誘發하지 않는 最少의 賃金—賃貸料比率이 있을 것이고 이때에 설정되는 限界線을 우리는 인플레이션障礙(inflation barrier)라고 부른다.⁽¹³⁾

經濟內에 資本貯量이 주어졌을 경우에 인플레이션 障礙線은 利潤率의 最少上限線을 설정하게 된다.

그러면 위와 같이 인플레이션 障礙線에 最少上限線을 결정짓는 要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는가?

첫째는, 勞働者階層의 資本所有比率일 것이다. 勞働者階層은 賃金뿐만 아니라 所有하고 있는 資本을 供給함으로써 所得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勞働者階層의 資本所有比重(예컨대, 株式의 大衆化와 같은 현상)이 커질수록 인플레이션 障礙로 설정되는 最少의 利潤率水準은 높아질 것이다. 經營權과 所有權의 分離가 이루어지고 株式의 大衆化가 이루어진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壓力도 낮아질 것이다.

둘째는, 潛在失業(disguised unemployment)이 存在하는 經濟에서 그렇지 않은 經濟에서 보다 賃金上昇壓力은 낮아질 것이고 인플레이션 障礙로 말미암아 設定되는 最少의 利潤率水準은 높아질 것이다. 勞動의 供給이 無限彈力的인 상태에 있는 低開發國經濟의 成長에 대하여 樂觀的인 見解를 披瀝했던 루이스(A. Lewis)의 假說도 위와 같이 潛在失業이 存在

(12) M. Kalecki, *Theory of Economic Dynamics*,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56.

(13) Robinson, *op. cit.*, pp.48-50.

하고 있는 經濟에 있어서의 經濟成長은 그 成長過程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誘發하지 않고서도 持續될 수 있다는 점이 內面的인 假定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潛在失業이 內在하는 즉 勞動供給의 無限彈力的인 상태는 成長經濟下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려운 것이다.

세째는, 技術進歩를 들 수 있다. 技術進歩가 成功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經濟는 그렇지 못한 經濟에서 보다 物價上昇을 誘發하지 않고서도 利潤率이 증가할 수 있다는 強點이 있다. 그러므로 技術進歩의 成功的인 結實은 最少의 利潤率上限線을 높이게 된다.

네째는, 資本蓄積率을 들 수 있다. 資本蓄積率이 높은 經濟에서는 그렇지 않은 經濟에서 보다 供給能力이 높아지므로 利潤率의 最少上限線은 높이 설정될 수 있다. 利潤率이 높아져서 投資需要는 증가하나 이 投資需要를 充足시켜 줄 資本의 蓄積이 뒤따르지 못하게 되면 (즉 貯蓄이 충분하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誘發이 促進되고 다시 利潤率의 最少上限線은 낮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國內貯蓄을 投資로 連結짓는 金融機關의 機能 역시 인플레이션 障礙線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金融市場이 발달하여 國內貯蓄을 投資로 圓滑하게 連結시켜 줄 수 있는 經濟는 그렇지 못한 經濟에서 보다 높은 水準에 인플레이션 障礙線이 설정될 것이다.

다섯째는, 勞動組合의 決定과 이 團結의 交渉能力을 들 수 있다. 勞動組合이 決定되고 交渉能力이 강한 經濟에서는 그렇지 못한 經濟에서 보다 낮은 水準에 인플레이션 障礙水準이 설정될 것이다.

로빈슨—가레나니模型에서 自由貿易은 資本稀少國에서의 利潤率을 증가시키고 資本使用的인 技術進歩를 촉진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利潤率의 증가와 資本使用的인 技術進歩는 投資의 증가를 촉진하게 되어 칼도—파지네티模型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利潤率의 증가가 더 한층 加速的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利潤率의 증가에 따른 投資의 증가는 經濟成長을 촉진하게 되나, 인플레이션 障礙線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것이다.

특히 輸出擴大政策은 利潤率上昇에 부채질을 가하여 加速화된 趨勢로 經濟를 인플레이션 障礙線으로 進展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輸出擴大를 통한 經濟成長을 추구하는 經濟에서는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인플레이션 障礙要因을 제거해가면서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의 圖謀를 필요로 하게 된다.

첫째로는 式(2.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勞動者의 貯蓄性向보다는 資本家의 貯蓄性向의 증가가 利潤率의 증가를 抑制하게 되어 인플레이션 障礙範圍 아래서 지속적인 經濟成長

의 圖謀를 가능케 해 준다는 利點이 있다. 사실상 증가되어 가는 投資需要에 병행한 資本蓄積은 經濟內에 生産能力을 擴張시켜서 인플레이션 障礙線을 上向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 障礙線아래서 經濟成長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技術進歩가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있다. 技術進歩는 限界資本—產出高係數를 낮춤으로써 人플레이션 壓力을 阻止하고 實質賃金の 증가에 寄與하게 된다.

V. 맺는 말

韓國經濟는 1960年代이후 現今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輸出擴大政策을 펼쳐 왔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輸出擴大政策을 試圖해 온 韓國經濟를 念頭에 두고 開放經濟體制下에서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를 考察하여 보았다.

傳統的인 新古典派의인 分配理論에 의할 것 같으면 自由貿易은 그 經濟에 풍부하게 賦存되어 있는 生産要素에 有利하게 所得을 分配한다고 示唆하고 있다. 예컨대, 韓國의 경우 勞動이 資本에 미해서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주어진 經濟라고 할 때 自由貿易은 勞動者에게 有利하게 所得을 再分配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이러한 新古典派의인 模型의 前提로부터 離脫하여 新케인즈學派에 속하는 로빈슨—가레나니模型과 칼도—파지네티模型에 입각하여 自由貿易의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考察하여 보았다.

그 結果 自由貿易은 傳統的인 新古典派의인 理論이 示唆하고 있는 바와는 반대로 오히려 그 經濟에 稀少하게 주어진 生産要素에 有利하게 所得을 再分配하게 되는 結果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新古典派와 新케인즈學派가 所得分配에 관하여 相衝되는 結果를 提示하게 되는 것은 新古典學派의 模型에서는 要素價格의 變化에 따라 生産方法이 柔軟하게 變할 수 있다는 新古典派의인 生産函數가 問題分析의 出發點이 되고 있으나, 新케인즈學派의 分析에 있어서는 이러한 生産函數보다는 資本主義經濟體制自體의 本質의인 性質을 分析의 出發點으로 하고 있는데 緣由한다고 볼 수 있겠다. 具體적으로 말하자면, 로빈슨—가레나니模型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本質的인 屬性의 하나인 利潤率均等化法則을 前提로 하여 自由貿易의 所得分配效果를 評價하고 있으며, 칼도—파지네티模型에 있어서는 케인즈의 理論에서와 같이 投資主體로서 企業家의 役割에 分析의 焦點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新古典派理論에 있어서는 生産函數를 基礎로 하여 價格機構의 範疇 안에서 貿易의 所得分配效果가 分析되고 있다는 점이 兩學說간의 分歧點이 된다.

開放經濟體制下에서의 輸出擴大政策은 利潤率을 상승시키고, 이것은 賃金上昇을 隨伴하여 인플레이션의 惡循環에 進入하게 될 인플레이션 障礙要因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障礙要因은 韓國經濟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과 符合된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인플레이션 障礙要因을 克服해 가면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資本蓄積이 필요하게 된다. 資本蓄積은 勞動者階層보다는 資本家階層의 貯蓄性向을 증가시킴으로써 所得分配을 勞動者階層에 有利하게 변화시키며, 賃金—物價의 惡循環으로의 沈沒을 豫防할 수 있게 된다.

資本家階層의 貯蓄性向 이외에도 技術進步에 의한 生産性의 증가 역시 인플레이션 障礙要因을 피할 수 있는 주요수단이 된다는 점을 또한 이미 指摘하였다.

本稿의 分析結果에 비추어 볼 때 輸出主導型의 韓國經濟가 인플레이션 障礙要因을 克服해 가면서 지속적인 經濟成長을 圖謀하는데 있어서의 關鍵은 資本家階層의 資本蓄積의 증가와 技術進步에 놓여 있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 [1] Garegnani, P., "Heterogeneous Capital, th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Theory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37, July 1970.
- [2] Kaldor, N., "Alternative Theories of Distribu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55-6.
- [3] Kalecki, M., *Theory of Economic Dynamics*, George Allen and Unwin, London, 1956.
- [4] Pasinetti, L., "Rate of Profit and Income Distribution in Relation to the Rate of Economic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1962.
- [5] Robinson, J., *The Accumulation of Capital*, 3rd ed., Macmillan, 1971.